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Critical Factors Making Koreans Poor Readings

박 정 길(Jeong-Gill Park)**

〈목 차〉

- | | |
|-------------------|----------------------|
| I. 서론 | 1.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 내용 |
| 1. 연구의 필요성 | 2.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 조사 |
| 2. 연구의 목적 | 1) 역사적 측면 |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사회적·교육적 측면 |
| II. 이론적 배경 | 3) 정신적·심리적측면 |
| 1. 독서의 목적 | 3.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 조사표 |
| 2.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 4.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분석과 해설 |
| III. 연구조사 방법 및 절차 | 5. 한국인 독서부진 해결 방안 |
|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한국인은 독서를 잘 하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독서부진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을 구조적, 다면적으로 진단하고 조사하여 그 요인을 명확히 추출하고 정리하면 독서부진을 개선할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의 진단, 분석을 역사적 측면, 사회적·교육적 측면,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그 주된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해소책과 독서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독서부진 원인을 찾아내고, 독서 저해요인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독서조장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독서수준과 독서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제어: 독서부진요인, 독서저해요소, 독서문제 해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ritical factors that have made Koreans such poor readers. What is the factors in make poor progress in reading of the Korean. The emphasis was put on identifying some indigenous barriers against buiding 'good' reading habits. Especially investigated are the following three aspects: historical, socio-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and strategies for correcting and improving the poor reading of Korean.

Key Words: reading problem, the factor of poor progress in reading, reading instruction

* 이 연구는 2001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kpark@ks.ac.kr)

· 접수일 : 2003. 5. 12 · 최초심사일 : 2003. 5. 20 · 최종심사일 : 2003. 5. 2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은 독서를 잘 하지 않기로 정평이 나 있다. 국민의 독서율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바람직한 독서문화의 정착과 독서풍토 조성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국민은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독서를 게을리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와 원인을 속속들이 밝혀내어 그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다각적인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계화, 국제화란 전 지구적 범위에서 국가간의 치열한 무역경쟁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무한경쟁의 기치아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현대에 있어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민총생산액(GNP), 즉 경제력을 제일 국력으로 내세우지만 국방력이나 국토면적 및 인구수를 국력평가의 지표로 삼기도 한다. 국력평가의 또 다른 준거로는 흔히들 '체력은 국력이다'란 구호를 외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수준이나 국민의 독서력도 국력평가의 한 요소가 된다. 그것은 일국의 힘이란 물질적 정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지식과 정보가 위력을 발휘하는 정보화 시대이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려할 만한 현상중의 하나는 '책이 점점 필요치 않게 된다'라든가 '책 없는 도서관', '가상 도서관' 등등 컴퓨터 인터넷 만능시대를 구가하고 추종하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발상을 터뜨리는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다.

단언 하건데 책(Book)이란 형태는 우리 인류역사와 더불어 그 생명과 효용적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소위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다 더 서적의 가치는 빛을 발할 것이며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결코 변하거나 퇴색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인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만 그 몇배의 시간을 독서에 할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나 폐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인간성과 영혼의 황폐화가 초래할 암담한 사회현상이 예견되어 미래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우리 나라의 교육수준과 교육열은 세계 일류급 수준인데 유독 독서수준과 독서율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거나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담보하고 있다. 상식적 범주의 일반론이지만, 독서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수록 국가발전은 지체되며 국가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독서를 게을리 하는 개인은 자아성숙, 자아확충, 자아발전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됨은 불문가지로 체언을 필요치 않는다. 우리 한국인의 독서부진 상태를 이렇게 방치해 두고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은 어느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국가의 미래는 낙관 할

수 없으며, 무자비하고 치열한 세계적 경쟁에서 낙후하기 쉽상이다. 우리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때 우리나라 문화의 질이나 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독서력과 독서수준이 고양되면 필수록 국민의 지적, 정보적, 정신적 역량과 성숙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한국인의 연간 독서율은 10명 중 8명이 1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으며, 10명 중 2명(2% 정도)은 전연 독서를 하지 않고 있다.¹⁾ 성인 1인당 평균 독서량은 9.7권으로 일본 국민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99년의 한국인 연평균 독서량은 1인당 9.3권으로 2년 동안 0.4권의 감소량을 보이면서 독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내용의 상세한 정보는 다음 III장 1항에 소상히 제시하여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상론을 전 개하지 않는다.

도저히 믿고싶지 않은 독서량 조사통계를 소개하면, 일본 초등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이 100여권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연간 2.8권의 책을 읽고 있다²⁾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것 외에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통계조사 내용이 다수 있지만,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1985년 11월 4일 일본 「讀書新聞」 독서경향 조사를 보면, 일본 학생들의 32%가 월 5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는데 비하여 1990년 청소년 무크지 발간 <푸른나무> 2호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월 단 1권의 책만을 읽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조사 대상의 53.3%였다.³⁾ 이처럼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실적은 외국학생들과 비교해 볼 때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독서율이 저조해서야 어떻게 일본을 따라 갈 수 있으며 선진문화 국민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이토록 국민의 전반적인 독서수준이 부진하고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마지않는 세계 일류국가, 또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진입할 수 있겠는가?

노벨 수상자 10명을 배출한 일본의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피폐한 경제적 절망을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저 경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일본국민들의 근면성과 단결력을 내세우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저력과 발전의 원동력은 일본인들의 엄청난 독서율과 독서실적, 범국민적 독서습관 및 독서의 생활화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개인이나 국가나 21세기의 경쟁력은 독서력에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닐 줄 안다. 21세기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무한경쟁의 사회로서 독서가 생활화, 체질화 되지 않고서는 모든 부문에서 낙후하게 된다.

현금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독서력은 분명히 국력이요 교육력 이기도 하다. 독서는 인간의 실존적 삶 속에서 당면하는 제반 문제해결과 경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각종 능력을 체득하는 중차대 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행위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과 사회조직 안에서 성공했거나 출세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독서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1) 한국출판연구소, "7년도 국민독서 실태조사", 1998년 6월 1일 경향신문 2면.

2) 스포츠조선, 제 276호. 2001년 2월 11일.

3) 한겨레신문, 제8면, 1990년 7월 6일.

하나같이 어린 시절부터 책벌레들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외국의 국민들은 우리보다 몇 배의 독서율과 독서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독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독서부진요인을 다면적, 구조적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독서생활의 부진 이유와 독서 저해원인을 면밀히 찾아서 그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독서생활의 증진과 독서실적 향상에 필요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지속적인 지식의 습득과 정보의 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인간의 생애를 통하여 가장 왕성한 지적모험과 진리탐구, 학문 연찬을 위한 독서활동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 학창시절에 있어 독서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생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있어 독서는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 주며 지적, 정의적 학습과 자기교육력을 증진시키는 원천이며, 다양한 인생경험을 위한 간접체험이다. 그것은 이 시기의 독서에서 받은 강한 인상과 감동 그리고 지적, 정의적, 자양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고 생애를 걸쳐 유익하게 작용하며 일생의 지향점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과, 또한 심령이 곤비하고 영혼이 외로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혜의 등불처럼, 신비한 능력을 동반한 계시와도 같이 늘 마음과 뇌리와 의식의 심층부에서 한 존재를 이끌고 가거나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 인간에 있어 그의 독서량과 학업성취도, 인간성의 함양, 자아실현, 사회적 성공과 출세는 독서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지능과 독서능력과의 관계는 0.6~0.85 정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⁴⁾

흔히들 한국인 가운데 일부가 사회에 진출한 후 독서를 마음껏 하겠다거나, 또한 직장인 중에는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 뒤 정년퇴임 후에나 아니면 일선에서 은퇴 한 후 조용히 독서나 하려고 한다는 말을 내뱉곤 하는데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치고 노년에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가 습관화 되었거나, 중·고등학교와 대학시절,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독서가 생활화, 체질화 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나 노년생활 가운데에서도 책 읽기가 그렇게 생각처럼 잘 실천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도, 교직자나 사회의 지도적 인물이 되어서도,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책

4) 손정표, 독서지도 방법론(대구 : 학문사, 1995), p.26.

읽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으니 그들의 자녀들도, 학생들도, 그들의 측근이나 직장 동료들도, 노인들의 손자나 손녀들도 모두 총체적 독서부진에 빠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독서의 심리적 환경이 열악하고 독서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므로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는 좀처럼 형성되기 어렵다.

국민 독서센터이자 지식과 정보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실행기관인 각종 도서관도 숫적으로 현저히 부족하고, 도서관의 각종 자료도 질이나 양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기능과 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직인 사서의 배치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음도 국민 독서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

독서가 개인발전과 사회진보의 수단으로 폭넓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인류역사 속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⁵⁾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한시절 크게 외침에 동의 했듯이 '독서력은 국력이다'란 호언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반대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을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관계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국민독서진흥책'과 같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펼쳐져 온 독서운동은 일시적, 한시적 캠페인 수준에서 구호만 요란하게 난무하다가 물거품처럼 꺼지곤 하였다. 독서전개 운동이 지속적이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때의 깜짝 쇼 마냥 사회 각계에서 분수처럼 솟구치다가 잠잠해지곤 하였다. 학교 차원에서의 독서지도교육도 국어과에서 독해력 위주로 단편적인 학습 형태로 수행되었으며, 각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도 도서관 이용자나 인근 주민이나 초등학교 학생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캠페인성 독서운동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나 도서관을 막론하고 독서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독서지도교육과 독서추진 활동을 펼쳐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독서율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독서풍토를 조성하여 전국민이 누구나 독서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한국인의 독서부진요인을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성 있고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인의 독서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독서부진 요인과 독서 저해요소를 정확히 조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가 의도하는 연구의 목적을 보다 소상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행위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 불가결한 인간적 행위이며, 인류 역사가 종언을 고할 때 까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고 존중되어야 할 당위성과 가치성을 함

5) W.S. Gray, *Reading(IRA, 1984)*, p.7.

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취미에 앞서 인간이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절대적, 필수적으로 일상화 되어야 하고, 자신과 국가를 위한 의무감까지 지닌 중차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정보가 기반이 되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자신있고 건강하게 지탱하며, 자유롭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서행위가 습관화, 일상화, 체질화 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의 기능과 사서직의 역할에 있어 도서관자동화, 전산화, 디지털화가 고도로 발달한 연후에 사서나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종국적으로 남게 될 2가지 중요한 업무는 독서지도(Reading Guidance)와 컴퓨터가 미처 해결할 수 없는 부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설(Interpretation)이 중요한 봉사업무가 된다. 이것은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분야로서 「독서지도」와 「해설」의 기능은 전문 사서직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비롯된다.

셋째, 한국인의 교육열, 교육수준 및 학력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비하여 (종합적으로 엄밀히 진단, 분석, 판단한다면 모순과 부조리와 비건전성이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독서열, 독서수준, 독서실적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독서력과 국력은 상관 관계가 높으며, 독서내용, 독서활동, 독서량, 독서수준, 독서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한 인간의 내면세계, 교양, 지성, 인간성 등 제반 능력이 결정되고 그러한 성품과 자질을 겸비한 개체들이 이룩한 사회와 국가의 문화수준 및 현실 생활의 질적 수준과 삶의 향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한 지적, 감성적 쾌락과 감동을 충분히 맛보지 못한 인간에게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 고급 문화의 향수란 한낱 빛 좋은 개살구이다.

넷째, 지금까지의 독서관계 논문이나 글쓰기의 내용들이 대개 독서영역의 어느 한 분야, 단편적 부문, 일면적 요소, 독서 실태 조사와 분석 및 해설, 독서지도 문제, 독서교육 관계, 상황적 독서문제 등에 머물고 있음에 비하여 본 논문은 한국인의 독서부진요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함에 있어 다면적,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독서 문제를 총체적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과 구조적 조사, 분석으로써 평가하고 해석하려 한다. 즉 1)역사적 접근 2)사회적·교육적 접근 3)정신적·심리적 접근 등을 통하여 독서부진 요인과 독서저해요소를 진단,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을 여러 각도에서 조사, 진단, 분석, 평가, 해설하므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한국인의 독서부진요인 및 독서저해요소, 즉 독서를 잘 하지 않는 제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각 계층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인) 독서실태조사를 시행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교육적,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그 요인을 조사, 분석, 해석한다. 또한 조사방법상에 있어서도 총체적, 구조적으로 접근, 진단, 분석, 해석 함으로써

독서부진 요인 및 독서저해요소를 철저히 조사, 추출, 정리하려 한다. 그리고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의 조사 및 분석에서는 피조사자, 피상담자의 주관적 요소도 상당 부분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이 내재되어 있거나 작용, 반응하기 때문에 면접법, 상담법, 토의법을 이용한 문화기술적 접근방법과 해석학적 연구방법을 병행할 것이다. 즉 양적, 질적 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독서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조사, 분석, 평가, 해석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성과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독서관계 논문은 대개 950여편 정도가 검색되고 있으나 대부분 단편적, 지엽적 연구로서 본 연구자가 시도하는 연구 테마와 유사한 논문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 독서관계 논문을 주제나 내용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3월 현재)

- | | | |
|---------------------|-------------------------|--------------------|
| o 독서일반 : 130여편 | o 독서-고전읽기 : 5편 | o 독서-경향·실태 : 150여편 |
| o 독서-양서 : 8편 | o 독서-평가 : 14편 | o 독서-독서일화 : 2편 |
| o 독서-독자 : 27편 | o 독서-독서심리 : 11편 | o 독서-회화 : 12편 |
| o 독서교육 : 32편 | o 독서방법 : 30편 | o 독서요법 : 18편 |
| o 독서위생 : 2편 | o 독서의 자유 : 10편 | o 독서주간 : 2편 |
| o 독서지도 : 100여편 | o 독서지도-계획·방법 : 81편 | o 독서지도-교과별지도 : 45편 |
| o 독서지도-독서자료선택 : 39편 | o 독서지도-독후지도·독서감상문 : 21편 | |
| o 독서지도-속독지도 : 30편 | o 독서지도/초등학생·어린이 : 58편 | |
| o 독서지도/중·고등학생 : 36편 | o 독서지도/대학 : 5편 | o 독서학교·독서회 : 35편 |
| o 독서환경 : 23편 | o 독서흥미 : 10편 | o 독서실태조사 : 15편 |
- 이상 총 951편.

이상 951편의 독서관계 논문 중에서 본인이 설정한 논제 및 연구 방향과 연구목적에 부합하거나 대동소이한 논문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선행연구가 희소함은 본인의 논문 작성에 있어 독창성 요소와 새로운 발상이란 관점에서는 오히려 특징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인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이나 독서저해 요소를 객관적,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지금까지 펼쳐 온 독서관장운동, 독서캠페인, 독서구호, 독서의 중요성 고취 운동의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독서부진요인, 독서저해요소를 명확히 추출하고 분석, 해석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독서지도, 학교에서의 독서지도와 교육, 사회의 독서운동, 독서풍토조성, 독서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독서기술문제, 독서지도 방법 및 독서교육문제, 독서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조성 및 개선, 보완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효과적인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를 재정리 수립하고 독서계획과 독서전략 수립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한국인의 독서율을 제고하며, 독서실적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독서문화 정착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II. 이론적 배경

1. 독서의 목적

<책을 읽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일반적 목적은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심풀이 즉 남아도는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또는 '무엇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교양과 수양을 위해서' 등등 독서의 목적은 다양하다. 이들 여러 목적을 단순히 추상화 하여 단적으로 간략히 표현한다면, 독서는 '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인간은 옛부터 독서를 통하여 지적, 정의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책을 도구화 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혹은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독서의 목적도 조금은 상이하였다. 즉 시대의 특성과 문화적 특질에 의하여 독서의 목적이 변하여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독서목적은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철학의 관조나 웅변의 실재를 위한 시민훈련에 있었고, 중세에는 교회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종교적 목적이 강하였고, 16·17세기에는 유용한 지식획득의 수단이었으며, 19세기 이전까지는 독서의 즐거움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에는 1)세계의 넓은 지식, 2)좋은 시민성의 근본적 이해에 목적을 두었고, 19세기 말에는 국민의 문화생활을 넓히고 더 좋은 문학 형태와 작품에 흥미를 불러 일으키려는 국가적 노력이 출판사의 출판량과 도서관 수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끼쳐 왔다. 1920년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발달에 따라 개인과 사회문제를 연결하여 통찰력을 키우며 넓게 이해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세기 중엽에는 독서의 사회적 측면에 이어 인지심리학, 언어, 사회학, 인류학 등과 함께 독서의 교육적 측면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강조되어 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고등정신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교육현장에서 독서 능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독서의 목적은 창조적 적응을 전제로하는 생각하는 힘에 귀결되고 있다.⁶⁾

이상과 같이 시대적 상황이나 추세에 순응하는 방향에서의 독서의 목적이 있을 수 있

6) 김효정 등저,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9), pp.7~8.

지만, 독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요구나 취향에 따라 주관적 입장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률적, 획일적 규정을 내릴 순 없다고 본다. 일본의 독서심리학자 阪本一郎은 독서의 목적을 1)생산적 생활활동 2)사회적 생활활동 3)오락적 생활활동⁷⁾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서를 해야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김동규는 그의 저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까?’에서 독서의 목적을 ‘인간은 생각하기 위한 지식을 독서에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또한 독서에서 배우고, 독서와 더불어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사물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빠른 폭넓은 인간으로 성장하며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독서의 목적과 그 효능까지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독서 전문가인 龜井勝一郎은 1)교양을 위하여 2)생활을 위하여 3)오락을 위하여⁸⁾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독서의 목적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귀결되고 있다. 1)자신의 현실적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지적, 정의적 성숙과 발달을 위해서 3)인간 자신의 기본적 욕구(정신적, 생리적)를 해소하기 위해서 4)교육, 조사, 연구를 위해서(현실적, 생산적, 효용적 정보 획득) 5)여가선용을 위해서 6)정신적 안정을 위해서(고독탈피, 호기심해결,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심미적 가치의 추구 등) 7)깊고 넓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8)타인과의 자유스러운 교제와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9)교양과 수양을 위해서 10)인생과 사회생활의 폭넓은 간접경험을 체득하기 위해서 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

독서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은 그것이 이미 일반화, 내지 상식화된 개념이라 할지라도 학습이론에 있어 반복과 강화가 주는 효과를 위해 서두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줄 안다.

우선 독서의 목적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면, 사람마다 책을 읽는 목적이 저마다 약간은 상이한 차가 있겠지만 독서는 간접체험(indirect experiences)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그들의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생활과제 등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얻는다. 또한 독서를 통하여 인간적 내면세계 즉 정신적, 정서적 바탕을 풍요롭게 장식하는 것이다. 국문학자 이회승씨는 그의 「독서와 인생」이란 글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지식만으로 살릴 수가 없다. 덕성의 함양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다량의 지식은 독서를 제외하고는 구할 길이 별로 없으며 수양의 비결 역시 독서에

7) 손정표, 전개서, pp.13~14.

8) 龜井勝一郎 等著, 讀書指導の 心理と生理(東京 : 牧書店, 1955), p.8.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⁹⁾ 즉 독서의 목적 면에서 볼 때 inspiration적 독서와 information적 독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케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케 한다.”라고 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바로 칸트가 말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생각하는 원천을 제공해 주고 생각하는 훈련을 쌓는 일이다. 즉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계발시킨다.

현대 지성인의 한 사람인 林語堂은 “독서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감금당해 있고 좁은 교제에 그치고, 대화의 폭도 자기신변의 이야기일 뿐 우물안 개구리 신세에 머물고 만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도 책을 들면 별세계의 자신을 발견하며 또한 그 책이 양서라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알고자 하는 본능, 즉 지적욕구 (The need to Know)가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와 성취욕구 (The need to achieve), 보호받으려는 욕구 (The need for security),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 (The need to belong), 애정을 느끼고 사랑 받으려는 욕구 (The need love and be loved), 심미적 만족을 위한 욕구 (The need for aesthetic satisfaction)¹⁰⁾ 등의 충족을 위해서도 독서는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독서의 중요성을 한국적 교육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내용상에서 언급한다면, 그것은 교수와 학습의 양면적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와 조건 관계로 거의 교과서 범위 내에 머물고 있으며 관련 자료나 참고서가 부족하여 폭넓은 다양한 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강의일변도의 주입식 교육이 거의 전부로서 토의식학습, 과제중심학습, 탐구학습, 완전학습과 같은 지도방법의 실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의 장면에서 우리가 구태 의연한 자세로 안이하게 실행하여 온 낡은 학습지도를 지양하고 새로운 학습지도의 관을 확립하려면 학교교육에 있어서 자료센터인 학교도서관을 잘 조직 운영하여 풍부한 교육자료를 제공 하므로써 교육적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갖는 고유의 기능으로서 독서센터의 역할을 다 할 때 학습에 있어서의 결함과 미비점을 보충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연구, 검토 없이 반복되는 교사의 학습지도방법인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명한 사회적 적응을 위한 문제 해결력 및 행위적인 변화¹¹⁾를 위해서도 독서를 통한 사고능력의 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하 한국의 교육학습방식에 있어 커다란 현실적 문제인 입시위주의 학습이 주는 폐단과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통한 자율학습과 탐구학습을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입시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 초·중등학교 과정까지는 독서지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날 1981년 11월 6일 당시 정부차원에서 「국민독서 생활화방

9) 한국언어문학회편, 대한국어(대구 : 형설출판사, 1972), p.23.

10) May Hill Arburthnot, *Children and Books*(Chicago : Scott Foresman and Co., 1947), pp.2~10.

11) 김재구, *교재연구와 수업의 실제*(서울 : 현대교육사, 1970), p.24.

안」을 마련, 문교부 주관하에 문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었는데 그와 같은 정부주도의 국민독서 진흥방안이 앞으로도 수립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당시 지침내용의 골자는 초·중·고교생들에게 학생별 필독도서를 선정, 독서결과를 학업성적에 반영토록 하고 대학생들에게는 학년 및 전공분야별로 학년 당 20권 안팎의 필독도서를 지정 역시 그 결과를 학습지도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독서를 통한 국민교양의 함양, 독서습관의 정착과 평생교육의 실천, 독서환경의 활성화, 도서출판 신장을 통한 문화창달 등 국민독서생활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복지국가의 구현에 목적을 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을 통한 독서생활의 정착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방안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잖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차원의 행정적 방안인지라 그 취지와 목적에 적극 찬성하면서, 향후 교육부와 독서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국민독서 추진운동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독서진흥책을 마련 적극 실행하여야 한다.

지난 날 국내의 일부 대학들이 「독서학점부과제도」¹²⁾를 도입하여 의도적으로 독서를 실행케 했던 교육 방침도 독서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편으론 한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독서부진 상태에 놓여 있었나를 여실히 증명하는 한 예시이기도 하다. 일련의 독서심리연구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학습은 거의 80% 정도가 자신의 독서행위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감안 할 때 대학의 교수방식에 있어서 강의중심의 학습이 초래하는 효과와 능률의 문제를 재검토 하게 된다. 한국적 대학교육의 당면한 현실적 난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교육환경 불비와 대단위 강의일변도 학습과 같은 교수, 학습방법을 지양하는 대학자체내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줄 안다. 문교부가 대학도서관에 「과제도서실」을 설치 운영하라는 권장사항 시달지침¹³⁾도 바로 대학의 교수방법개선에 따른 부수적 행정지침사항으로서 이 역시 대학생들로 하여금 폭넓은 전공서적 독서활동을 조장시키는 내용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강조되는 「평생교육」이니 「계속교육」이니 「추후교육」도 그 참뜻은 결국 학교를 졸업 후 사회활동이나 취업활동에 있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 활용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와 연속적으로 발전 변화해 가는 시대적 추세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이고 보면 그것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독서자료를 입수하여 이용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능독서」¹⁴⁾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인생여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너와 나와의 만남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단

12) 부산소재 대학으로는 신라대학교가 1979년부터, 동아대학교는 1982년부터 시행함.

13) 1980년 12월 30일 문교부 공문 학교1020-1782호

14) 개인의 학습독서로서 국가와 사회 및 소위 집단의 발전, 가정생활의 향상까지 도모하는 목적이 분명한 독서로 ①독서자료의 이용가능 ②독서자료의 이해력 ③독서자료의 평가 및 선택능력 ④독후의 처리능력 등이다.

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가 깊은 인간애와 애정과 이해를 갖고 만나는 따뜻한 상봉이 아쉬운 현대사회생활이다. 훌륭한 인격과 품성이 만나는 시민사회는 그만큼 정겹고 명랑하며 질서와 조화가 깃든 바람직한 공동시민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많은 사회는 자연 거칠고 삭막하며 온갖 부면의 발전과 창의성도 결여되게 마련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엔 즐겁고 흐뭇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로 꼽는 것은 진실로 사랑하는 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과 좋은 친구와 존경할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같다. 진실로 덕망 있고 아름다운 영혼을 접하고 지혜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삶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독서의 중요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각자 제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 대체로 꿈과 이상의 실현을 위해 산다고 한다. 사람마다 품은 꿈과 이상은 다종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실현하고 성취함에는 온갖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고 갖은 지혜와 수단, 방법이 요구된다. 그런 것을 체득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이 있지만 뭉니뭉니 해도 독서를 통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창조의 과정인 것이다. 기존문화 위에도 새로운 창조를 가미한 새 문화 즉 더욱 발전, 향상된 문화를 구축해 가는 일이다. 이와 같이 문화의 창조 발전과 인지의 발달에 기여한 서적의 위대한 공헌은 바로 독서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Ⅲ. 연구조사 방법 및 절차

1.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 내용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독서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지난 12년간에 걸친 한국인의 독서실태를 다년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뿐 아니라,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내용도 함께 제시하여 한국인 독서실태를 상당히 객관적, 다각도로 조사, 수집, 정리한 내용을 도표화 하였다. 한국인 독서실태 조사 결과는 해마다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 개인단위로 조사한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신문지상, 잡지,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집 등 여러 간행물에 수록,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조사 내용은 조사의 신빙성,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이 의아스러울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기가

주저되는 실태조사 내용도 있다. 물론 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표집 대상 집단의 특성, 추출방법, 조사 기준의 문제나 조사질문 내용의 상이성 관계로 빚어지는 결과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지난 12년간 (1990년~2002년)에 걸쳐 여러 기관, 단체, 개인이 조사 발표한 한국인 독서실태 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단 독서실태 내용을 '독서량'과 '독서율', '독서시간'만을 제시한 것은 도표작성상 편의적 방편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이점은 이 논문 조사방법에 있어 일종의 약점임을 자인하는 바이다.

〈표 1〉 한국인독서실태조사내용(1990년~2002년)

조사발표 년 도	조사주체 (단체 혹은 개인)	조사발표 출처	독서실태 조사내용 (독서량·독서율·독서시간)
1990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 김경일 교수	한겨레신문, 제663 호.1990.7.6.(8)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4,5,6년생 1만2천명 대 상자 중 31.9%가 하루 30분 정도 읽는다
	청소년 무크지 조사	<푸른나무> 제2호	전국 중·고교생 1천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53.3%가 월간 독서량은 1권 이다
1991	지경사 대표 김병준	스포츠조선, 제276호.1991.2.11	한국 초등학교생 연간 독서량-통상 2.8권 일본 국민교생 연간 독서량-통상100여권
1992	독서 새물결 추진 위원회 (정원식 위원장)	조선일보, 22167호. 1992.11.12	한국 초·중·고생 연간 독서량-7.3권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9.5권 일본 국민 월간 독서량 3.8권, 연간 45.6권
1993	교육부 조사	경향신문,1993.5.4 (문화면)	한 학기당 한국학생 독서량-2.9권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9.5권 일본 국민 연간 독서량-20.4권
	제1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11.3권 한국성인 독서율-79.3%
1994	제2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9.5권 한국 성인 독서율-86.8%
	독서 새물결 추진 위원회 (정원식 위원장)		한국 초·중·고생 한 학기 독서량-14.5권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9.5권
1995	제3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 초·중·고생 한 학기 독서량-14.5권 한국 성인 연간 독서량-9.6권 한국 성인 독서율-79%
	독서 새물결 추진 위원회 (정원식 위원장)		한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9.6권 한국 학생 연평균 독서량-15.2권
1996	제4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 초·중·고생 한 학기 평균독서량 -15.4권 한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9.1권 한권도 안 읽는 국민-전체국민의 22.8%
	한국출판 연구소	한국교육신문, 1996.2.14.(7)	한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9.1권 한권도 안 읽는 사람-21% 초·중·고생 한학기 독서권수-초등 28.2권 중등 10.8권 고등 7.2권 ※1996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제50회 「독서세론조사」-일본 국민 연평균 독서량 -19.2권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1997	제5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경제신문, 1997.11.1	한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9.7권 ※한국 성인 23%는 1년 동안 1권도 안 읽음
	한국 문화정책 개발원	경향신문, 1997.8	전국 15세 이상 남녀 2천여명 대상 조사 조사대상 21.8%는 한 권도 안 읽음 한국 성인 월간 독서량-0.8권 일본 성인 월간 독서량-1.6권 중·고·대학생 800명 조사-월평균 1~2권
1998	한국출판 연구소	경향신문, 1998.6.1.(2)	한국 성인 연평균 독서량-9.7권 ※일본 국민의 절반 수준임 초등학생 4,5,6학년 한 학기 독서량-29권 중·고등학생 한 학기 독서량-13권 서울소재 사무직 종사자 연평균 독서량-남자16.2권 여자 10.9권
	통계청조사	발표통계연감 1998	15세이상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13.2권 한국 국민의 독서율-63.5%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정길 교수		「독서지도론」수강생 119명 연평균 독서량-15.4권
1999	제6회 국민독서실태 조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윤정광)	중앙일보 제1850호, 4면	초·중·고생 한 학기 평균 독서량-13.3권 ('96년 대비 2.3권 감소) 독서시간 1일 44분 성인 연평균 독서량-9.3권 독서율-77.8%
	한국 갤럽 조사	경향신문	한국 성인 월평균 독서량-0.8권, 연간 9.6권
	통계청조사 발표	통계연감 1999	국민 한달 평균 독서량-1권, 연간 12권 독서인구 비율-전체 국민의 59.4%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정길 교수		「독서지도론」수강생 98명 연평균 독서량-13.9권
2000	한국출판 연구소 (이사장 윤정광)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계」	전국 성인 남녀 1500명 대상조사 연간독서량-9.3권 초·중·고등생 3,000명 대상조사 한 학기 평균독서량-10.5권 1996년 보다 4.9권 감소현상 나타냄
	한국갤럽조사		18세 이상 1,605명 조사-전체의 44.6%가 독서 한 달 평균 독서량-1.59권
	사회통계조사 발표	부산일보, 2000.5.5 (문화면)	한국인 1인당 연평균 독서량-13.2권(96년의 16.1권보다 2.9권 감소) 독서인구 비율-59.4%
	경성대학교 자유교양과목 「독서지도론」강사] 손혜경		「독서지도론」수강생들의 경성대 학생 독서량 설문조사 예·체능계생 연간 독서량-5~6권 인문·사회계생 연간 독서량-10~12권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정길 교수		「독서지도론」수강생 93명 연평균 독서량-9.7권
2001	한국출판 연구소 조사	대한교원신문, 제762호 (2면)	국내 초등생 학기당 독서량-23.3권 " 중등생 " - 9.6권 " 고등생 " - 7.1권

2001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정길 교수		「독서지도론」수강생 85명 연평균 독서량-9.5권
2002	문화관광부 의뢰 한국출판 연구소 조사	한국교육신문, 2003.1.20 (5면)	전국 초·중·고등생 3,000명 대상 조사 실시 1996년 한학기 독서인구 비율-96.7% 1999년 " -93.9% 2002년 " -89.6%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정길 교수		「독서지도론」수강생 73명 연평균 독서량 -9.3권 ※대학생 독서량 매년 감소하고 있음

위에 제시된 <표 1>의 “한국인 독서실태 내용”을 설명해 본다면, 한국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92년 9.5권, '95년 9.6권, '96년 9.1권,('96년 통계청조사 발표 16.1권도 있음), '97년 9.7권, '99년 9.3권으로 조사발표 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지난 12년간 대개 9.4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과 객관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 수치는 한국갤럽조사에 의한 한국 성인 월평균 독서량 0.8권과 거의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아직도 한 달에 책 1권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한국 성인의 독서실상은 일본성인의 연평균 독서량 19권(한달 2권 정도)¹⁵⁾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대학생들의 독서량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인들의 예상을 불허할 정도로 높게 나와야 함이 당연지사일텐데 그 실상을 파악하고 보면 유려할 정도로 빈약하다. 대학생들의 독서실태 조사발표가 극히 드물어 전국 대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치 획득이 여의치 못하여 유감이다. 1997년 월드리서치가 중·고·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량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한달 독서량은 평균 2권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생 200명의 경우 1권이 93.5%, 2권이 29%였다. 본 연구자의 소속 대학인 경성대학교 학생들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독서실태 조사를 근거로 그 실상을 소개하면, 경성대학교 자유교양과목인 「독서지도론」담당 강사 손혜경의 조사에 의하면, 예·체능계열 학생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5~6권이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10~12권,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는 6~7권이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성대학교 자유교양과목인 「독서지도론」수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년은 15.4권, '99년은 13.9권, 2000년은 9.7권, 2001년은 9.5권, 2002년은 9.3권으로 매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2000년도 1학기 「정보와 사회」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당과목 강사 이연옥이 조사한 결과 연평균 독서량이 12.5권으로 한 달 평균 1권 정도의 독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전공서적과 잡지를 제외한 교양서적의 독서량을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1989년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1년 평균 독서량은 18.5권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대학생들은 25.8권이었다.

15)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讀書世論調査:1994년~2000년

1995년 역시 한국출판연구소의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들이 1995년 한 해 동안 읽은 책(잡지, 만화, 참고서 제외)은 15.5권으로 지난 1989년 보다 3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쨌던 한국 대학생들의 한달 평균 독서량은 2권도 채 안되는 한심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1990년 청소년 「무크」지 조사에 의하면 전국 중·고생의 53.3%가 한 달 1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으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출판연구소 주제 「국민독서실태 조사」 내용에 의하면 중학생은 한 학기 평균 10.4권, 고등학생은 한 학기 평균 7.9권을 읽고 있다.

다음. 초등학생의 경우 연 평균 독서량이 '94년 25.4권, '95년 22.9권, '96년 28.2권, '99년 23.3권, 2001년 23.3권¹⁶⁾이었다. 이상과 같은 한국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독서량은 일본의 초, 중, 고생들의 독서량에 비하여 1/2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독서실태조사 결과 추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한국인들의 독서량이 심히 미약하고 저조함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책을 잘 보지 않는다'란 세간의 소문과 식자층의 개탄과 우려는 현실적으로 명백한 사실임이 거듭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서부진 현상을 안이한 자세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거나 체념적 자세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왜? 우리 국민들이 독서를 잘 하지 않는 국민으로 지목 당하고 있는지? 본 연구자는 그 요인과 이유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다면적,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 조사

1) 역사적 측면

조선조까지만 해도 -오늘날도 그러한 경향이 다소 있지만- 독서는 입신출세의 수단과 방편으로 일부계층의 점유물처럼 선비나 사대부집안에 국한되었고, 도서 역시 왕후장상이나 귀족계급과 같은 특권층의 소유물로서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므로 독서는 일반화, 대중화되기 어려웠다. 그 당시 독서의 목적은 지식이나 정보획득 및 교양, 수양, 진리탐구가선용적 독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급제하기 위한 출세가 목적이었다. 그것은 성현들의 권학문(勸學文)에서 조차 직설적으로 표현된 것이 많음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말 이전의 독서론(讀書論)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보면,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독서장(讀書章)에 '배우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물이 빈틈을 타고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치를 궁리하고 착한 것을 밝힌 뒤에라야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道)가 뚜렷하게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진보해 나갈 수가 있는

16) 한국출판연구소, 국민독서실태조사(제1차~제6차까지)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치를 궁리해야 하고, 이 이치를 궁리하려면 먼저 글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현들의 마음 자취와 착한 일을 본받는 것과 악한 일을 경계한 것들이 모두 이 글 속에 있기 때문이다.¹⁷⁾ 이처럼 독서의 목적이 이치의 궁리 즉, 진리탐구에 있었다. 그러나 이씨 조선 때의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탐구나 인격수양 보다는 오히려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쪽이었다. 그것은 성현들의 권학문에서도 읽을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서도 살필 수 있다. 宋나라 眞宗의 권학문도 그렇고, 왕형공(王荊公)의 권학문에 의하면 「貧者因書當 富者因書貴 愚者得書賢 賢者因書利 只見讀書榮 不見讀書墜 賣金買書讀 讀書買金易」¹⁸⁾라 하여 독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입신출세에 두고 있다. 물론 당시에 지식획득이나 수양과 오락을 위한 독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관직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지냈던 소수의 사람들에 한하였다. 벼슬을 하직한 후 향리에 돌아가 서원(書院)을 세워 제자들을 양육했던 이황, 이율곡, 정약용, 정철, 담헌 이하곤 등등의 문하생들이 독서에 정진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제자백과, 고전, 논어, 맹자, 소학, 대학, 중용, 시경, 예경, 서경, 역경, 춘추의 오서(五書)와 오경(五經)을 골고루 자세히 읽어서 그 사리를 깨달아 알아서 의리가 날로 더욱 밝아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연후에 남는 힘이 있으면 또한 사서(史書)를 읽어서 고금의 역사에 통하고 일의 변하는 이치에 통달해서 자기의 식견을 길러나가야 한다.¹⁹⁾란 내용을 살펴 볼 때 그 당대의 독서도 자기수양이나 지식획득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읽기교육이란 옛날 이른바 서당에서 실시한 소독(素讀)일변도의 교육이었다. 李朝 世宗大王 때 독서당(讀書堂)이란 것을 두고 국비로 총명 연소한 대신을 가려 틈을 주어 독서에 전념케 한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가 있었으나 이 역시 일부 젊은 문신에 국한된 것이었다. 즉 독서의 귀족시대였으므로 그것이 보편성을 띄고 널리 민중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는 없었다. 우리의 읽기교육은 “한글”이 반포된 이후 비로소 언문(諺文)이란 팔시하에 부녀자들이나 아이들이 차츰 책을 대하게 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 물결이 서서히 밀려와서 1894년 갑오경장이란 정치적 변혁을 계기로 “순국문”이 처음으로 공문서에 등장한 것은 연산군 이후 참으로 오랜만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민족적인 자각이 주체성을 되찾고 우리 문자언어의 표기가 순한문에서 국한문 혼용 내지 순국문으로 넘어오는 뜻깊은 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그리고 올바른 주체성의 전개가 그 뒤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었더라면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 나라말과 글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인데, 갑오경장의 정치적 실패와 함께 우리의 말과 글, 따라서 국어교육 내지 읽기지도라는 것도 일본 압제의 그늘 밑에서 햇빛을 못 본 그런 비참한 형세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못난 조상 탓

17) 李珥, 擊蒙要訣, 李民樹 譯. 乙酉文庫71. (서울 : 乙酉文化社, 1982), p.50.

18) 金致雨, “過去의 讀書論에 관한 分析的 考察”, 圖書館學研究, 第3號(한성여자초급대학출판부), (1977), p.6.

19) 李珥, 전계서, p.52.

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쇠잔하여 드디어 일본에 강제 합병 당한 후 일제 36년의 암흑기에서 우리는 말과 글을 수탈 당하고 저들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하여 눈과 귀가 멀고 정신도 의식도 몽롱한 피압박민족으로서 독서생활은 거의 침체되다 시피하였다.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조국해방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격동과 혼란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국민독서 환경은 영점지대였으며, 출판사업, 문화정책, 교육제도 등 인간정신차원의 여건은 악순환과 혼미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런 와중과 혼돈 상태에서 드디어 저 동족상잔의 6.25동란이 발발하여 우리는 전쟁의 참변과 비극속에서 오직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이 있었다. 휴전 후 전쟁이 활기고 간 상흔과 전화로 인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립과 재건을 위해 다른 것을 부지하기에 여념이 없는 판국에 언제 인생의 참된 가치나 예술의 감상이나 문화적 생활을 추구할 정신적 여유가 있었으며, 생활을 즐기며 정신적 내면세계를 추구할 수 있었겠나? 그러한 정황 하에서 4.19 학생의거와 5.16 군사혁명을 겪게 되었다. 그로부터 출범한 제4공화국의 정치이념은 무엇보다도 우리도 잘 살아야겠다는 굳은 집념 아래 국가정책의 기본은 경제우위 표방 개발독재정책, 경제일변도 물질적 부를 위한 수출산업과 무역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 경제개발 일변도의 사회환경이 휩쓸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상황과 배경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은 물질과 경제본위 사고방식의 황금만능주의와 권력지향적 성향이 농후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우려할 만한 상태임은 한국대학생들의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전도되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국민의 사회생활은 제대로 영위될 수 없었으며 독서할 마음의 여유나 물리적 독서환경과 특히 심리적 독서환경의 조성이 극히 지난하였다.

2) 사회적·교육적 측면

사회적으로는 권력, 금력이 위세를 떨치게 되었고 인간의 사회적 가치기준도 물질적, 경제적 요소가 최고로 평가받는 사회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부 우선주의 인식과 출세주의가 팽배한 상황 아래서 교육은 오로지 출세의 방편으로 전락하므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활개를 치고 불가피하게 되어 부모들의 교육열이나 자녀에게 거는 기대는 극성스럽고 한심한 지경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하에서 암기위주, 강의 일변도의 교수 및 학습방법으로는 우리가 진정 교육에 바라는 전인적 인간형성이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속에서는 아동,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이나 독서능력과 독서흥미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독서지도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인간의 지식습득이나 학습 및 교양의 함양 등이 독서를 통하여 거의 이룩된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독서지도 교육은 그 중요성,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독서에 의한 자기개발, 문제해결능력의 함양, 창의성 개발과 발달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있어 중요시되어야 할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정의 독서환경도 형편없는 지경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이 시민독서 센터로서 그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느냐고 반문할 때 그것은 이미 학생들의 입시공부방으로 뒤바뀐지 오래이다. 바라건대 하루 속히 사회, 교육적으로 여건이 호전되어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침체와 과부족, 사서 및 사서교사의 미 채용으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독서활동, 독서지도교육의 부재와 미 실행은 아동, 학생들의 독서생활을 위축시켜 독서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TV시청이 독서에 미치는 유해요인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일반화, 상식화 된 내용으로서 요즘 우리나라 아동의 1일 평균 독서시간은 30분 정도인데 반하여 TV 시청시간은 2~3시간을 웃돌고 있다. 요즘은 일반 성인들도 귀가 후 많은 시간을 TV 시청에 빼앗기고 있다. 특히 주부들의 경우 70% 이상이 하루 2~3시간을 TV에 정신을 홀리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고착화 되면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책의 포기는 지적생활의 몰락과 퇴보를 초래한다. 「TV망국론」을 쓴 어느 일본 평론가의 글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TV를 많이 보면 볼수록 바보스러워 지고 인간경험의 축소화와 창의력의 둔화현상을 가져온다. 거기다가 사고방식도 수동적, 표피적, 찰라적 유형으로 흐르기 쉽고 소비성, 사치성이 높은 생활인이 되기 쉬운 것이다. 오늘날 영상문화, 전자매체의 위력 앞에 인쇄문화는 위축 일로에 있다. 흥미와 재미로 점철된 동적 영상매체에 중독된 사람은 정적이며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서행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책 읽는 것은 복잡한 지적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체를 보다 선호한다.

TV 시청은 독서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독해력과 작문력의 저하를 동반한다. TV 시대의 어린이들이 선택하는 책의 종류는 문학 책이나 철학 책 등 양질의 도서가 아니라 단편적이고 가벼운 책을 선호한다. -중략- TV 시청이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더 많은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²⁰⁾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매력은 TV 보다 더 힘이 강하여 일단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면 독서는 지겹고 싫증나고 하찮은 일로 치부되고 만다. 소위 「인터넷 중독 증후군」에 빠지면 그 폐해는 심각한 지경에 도달한다. 인터넷 중독은 TV 중독보다 더 독서를 기피하고 부정적으로 보며 심지어 혐오까지 갖게 한다. 오늘날 이들 두가지 현상은 독서저해 요인으로서 가장 왕 노릇 하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조정과 적절한 대비책과 치료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성인들의 책읽기를 방해하는 최고 요인은 '일'이다. 독서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 성인의 40% 이상이 직장의 업무, 먹고살기 위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독서를 못한다고 한다. 퇴근 후에도 잦은 회식, 취미생활, 건강 돌보기 위한 체력운동, 가족들과의 외식,

20) 남명자, 어린이와 텔레비전 환경(서울 : 나남출판, 1995), pp.185~186.

TV 시청, 비디오, 인터넷, 틈이 나면 부족한 수면을 채우기 위한 잠자기 따위로 도저히 독서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물론 독서가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가 안 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학교도서관의 불비와 열악한 시설 및 읽을 만한 장서부족, 사서 및 사서교사에 의한 독서지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독서지도교육 실종, 학교의 독서풍토와 독서환경의 열악, 독서분위기 조성 불비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한국 학생들이 교육받는 최종 목표는 좋은 대학, 일류대학 입학이 선결 문제요 최고의 희망사항이다.

그것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함이고, 무자비한 생존경쟁사회에서 낙후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과 무한 경쟁논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릴적부터 독서를 강요받았으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책과 씨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은 교과서나 입시 참고서, 학원 학습서에 지나지 않는다. 입시를 위해 딱딱하고 재미없고 골치아픈 책들만 거의 의무적으로 읽어 왔다. 이러한 습관이 체질화된 학생들은 자연 상급학교 입학 후 당연히 책 보기를 싫어하게 된다. 독서는 골 때리는 귀찮고 고통스런 정신작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독서지도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를 통한 즐거움이나 감동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독서란 재미없고 귀찮은 일로 치부하게 되었다. 다만 교과서를 벗어난 만화나 흥미 분위 잡지 또는 음란물과 같이 머리와 심신을 쉬게 할 수 있고 약간은 입시교육과 학습행위에 저항하는 듯한 내용의 독서물이 흥미를 줄 뿐이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감성적 아름다움과 고상한 정조를 허용하지 않고, 암기식, 논리적 사고만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교육제도적 병폐는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책읽기를 현저히 방해하는 독서저해 요인이다. 책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독서분위기와 실천적 독서환경의 조성은 우리사회 전체가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사회전반적으로 독서를 예찬하고 독서를 장려하는 독서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도 독서부진을 가져온 요인이라 하겠다.

오늘날 영상문화에 퇴조 당해 가는 활자문화의 위기를 실감하면서 독서풍토 개선과 진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과 처방이 마련되어야 할 줄 안다. 요즈음은 컴퓨터 게임이나 채팅, 인터넷 활용 등으로 인하여 독서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가 심대해지고 있다. 한국 출판연구소가 현대리서치연구소(대표 이상경)에 의뢰해 초·중·고생 3천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27일~12월 26일 실시한 제6회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독서량이 '96년에 비해 감소된 까닭을 묻는 질문에 52.7%가 공부, 숙제, 학원수강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였고, '독서습관이 안돼 있어서'가 17%, 'PC통신과 인터넷, 컴퓨터 게임'이 7.2%, 'TV 시청'이 7% 로서 모두가 시간이 없음을 독서방해 이유로 꼽고 있다.

3) 정신적, 심리적 측면

현대인의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도산업사회로 치닫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신의 황폐화 현상, 비인간화문제, 물질우위의 황금만능사상은 높은 수준의 문화감각과 창조적 인생을 거부하며 진정한 생의 가치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이나 논리적 사고도 거부한다.

그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 문화, 예술이나 로고스 따위는 우습게 여긴다. 또한 종교적 의미나 철학적 사유 등 인간의 본원적 명제들도 거추장스럽게 취급한다.

그러니 자연 격렬한 정신적 노작인 독서행위도 부담을 느끼고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된다. 그들의 독서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도 문제지만 벌써 책이라면 골치 아픈 존재로 역겨운 것으로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기저에 점박혀 있는 것이다. 그들 정신적 황무지는 그들을 에워싼 독서환경이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도 우선은 그들 자신의 의식과 가치관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들은 어린시절부터 정신적 발달에 상응한 독서흥미를 맛보지 않았고, 독서능력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읽고 그로부터 얻는 감동경험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참된 진리의 발견이 얼마나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지? 인생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얼마나 숭고한 의미로 그의 내부 세계를 풍요롭게 가꾸는지? 이 세계가 얼마나 경이와 호기심과 감동적 사건들로 가득차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성장해 왔다.

외롭고 쓸쓸할 때, 인생의 용기와 삶의 의욕이 상실될 때, 책을 펼치면 거기에 희망과 위로와 격려의 속삭임이 자신을 반기는 줄 모르기 때문에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즉 독서삼매경의 희열을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다. 얼마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아파트 윗층에서 울며 내려오는 어린애(대구의 박홍배 군)를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살해한 인간 등 모두 공통적으로 가진 그 잔인한 행위들도 결국 성장과정에서 꼭 읽어야 할 아름다운 동화나 고전이나 양서들을 접해 보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잔혹한 인간성과 폭악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적, 심리적 임상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활발히 연구 발표되고 있는 독서치료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치료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문제는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주변에 그런 상처를 달래 줄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살게 되었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하여 주변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 아무에게도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상처는 방치되고 병이 된다. 이럴 때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에 자신을 비춰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달래 줄 친구를 만나서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21)

21) 김정근, 송영임,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2002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 pp.38~39.

인간은 그의 어린시절부터 정신적, 심리적으로 아름다운 품성과 건전한 정서와 정조를 맛봄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며 바람직한 덕성과 수양을 이룰 수 있는데 이를 가장 가능케 하는 방법에 독서가 제일인 것으로 믿는다. 어린시절부터 마음속에 축적되어온 독서 감흥이 결핍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책읽기를 귀찮게 생각하며 결국 책을 멀리 함으로서 독서의 습관화, 생활화가 어렵게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독서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간다는 옛말은 이런 점에서 옳은 지적인 것 같다. 한국인이 독서를 잘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한국인의 「빨리 빨리 근성」도 한 몫을 차지할 줄로 믿는다. 정신적 노작인 독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차분히 주의집중을 기울여 읽어 나가야 하는데 조급성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독서를 해 내기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현대와 같은 스피드 세상에서 피동적이고 찰라적인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현대한국인에게 독서행위는 실로 힘든 정신노동이기 때문이다.

3.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 조사표

한국인의 독서부진 요인을 그 동안 연구자가 설문지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과 면접방법 (질의-응답식) 및 피조사자의 진술, 그리고 각 문헌과 독서관계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다섯가지로 대구분하고 각 유별 항목에 관련된 세부요인을 <표 2>와 같이 정리, 작성한 것이다.

<표 2> 독서부진요소 (독서저해요소, 독서장애요인)

대상 요인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성인(사회인)
독서 시간 부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각종과목, 특히 어학공부) · 숙제(과제해결) · 각종 학원 출입 · 오락실 출입 · 컴퓨터, 인터넷 접속 · TV 시청, 비디오시청, 영화 감상, 라디오청취, 음악감상 · 입시공부(고등학생의 경우)로 인한 시간 절대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학습(상대평가 학점 부담) · 어학 학습 · 취직시험 준비 · 컴퓨터, 인터넷 몰입(일부는 중독현상) · TV시청, 비디오 시청, 음악 감상, 영화감상, 비디오시청 · 동아리활동, 친구·이성친구·애인과의 교제 등으로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로 인해서 차분히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일(노동)에 치이고 바빠서, 일에 지쳐 심신피로-독서는 무리 · 여가 활동으로 시간적 여유 없음 · TV 시청 및 비디오 시청 · 컴퓨터, 인터넷 접속 · 건강유지 위한 각종 스포츠 및 운동으로 시간 많이 소요 · 고우스톱 등 오락(도박성)에 빠짐 · 사회생활, 경제생활로 매일 분주함

독서습관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동기유발 지도 거의 못받음. 독서유인 체제가 거의 없음 · 부모, 가족, 교사로부터 독서 지도교육 거의 없음 · 유아기부터 부모가 책을 읽어주기, 이야기 들려주기가 부실했음, 독서자료 추천, 독서물 권유 거의 없음 · 독서흥미부족, 독서무관심, 독서의 중요성 인식결여로 독서행동 미성숙 · 어린이 시절부터 독서 제대로 할 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습관이 형성 안되어 있음 · 유아기부터 현재까지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불량했음 · 여러 요인으로 독서생활화 미정착 · 독서흥미가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습관화 안되어 있음 · 독서흥미 거의 없음 · 여러가지 현실적 환경 제약으로 독서생활화 거의 안됨 · 어린시절부터 독서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못하였기 때문에 독서가 체질화 되지 못함
독서지도교육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교육 거의 못받음 (독서흥미 유발지도 거의 못받음) · 독서행위지도 및 독해기능지도 못받음 · 독서 자료선택 능력부족(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름) · 독해능력 부족 · 이해력, 감상력, 비판력 부족 · 속독법 훈련 못받음. 독파력, 지독력 부족 · 독서장애 및 독서부적응 행동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교육 거의 못받음 · 속독법 훈련 거의 못받음 · 지독력, 독파력 부족 · 이해력, 감상력, 비판력 부족 · 대학 교과과정에 독서지도 교육이나 독서교육 유사과목이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지도교육 받은 경험 거의 없음 · 속독법 훈련 받은 적 없음 · 속독이 안되므로 지독력, 독파력도 부족 · 독서기술 및 방법 미숙
독서환경문제 (독서의심리적환경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물리적 독서환경 불비 · 가정의 심리적 독서환경 불비 · 소음, 악취 등의 환경 공해 · 가정 비치도서 빈약 · 가정 독서분위기 안좋음(부모의 독서모습 자주 못보면서 성장함) · 부모, 가족들과 독서대화 거의 단절 ·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절대부족 · 도서관 장서 빈약 · 도서관 접근 불편, 도서관 이용 불편 · 사회 전반적 독서분위기 조성 안되어 있음 · 부모, 가족, 교사, 친구들 독서모습 보기 힘들 · 책 값이 비싸다(도서구입비 마련 곤란) · 일상생활 가운데 독서관계 대화 실종상태 · 영상문화 확산으로 인쇄문화 위축(컴퓨터, 인터넷, TV 영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사회전반적인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열악함 · 가족, 친구들 독서모습 보기 힘들 · 경제사정과 도서관 접근 불편으로 보고 싶은 책을 즉시 못 보는 현실적 고충이 있음 · 대학 도서관 장서 빈약 · 책값이 대체로 고가이다(도서구입비 부족) · TV시청, 컴퓨터 및 인터넷에 빠져 독서의 심리적 환경이 불비함 · 독서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안내하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이 불실하다 · 「독서학점 부과제도」같이 독서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상의 유인체제가 거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사회의 독서환경이 열악하다 · 독서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못함 ·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공공도서관수 절대부족) · 필요한 책, 보고싶은 책을 즉시 구입하기가 어려움 (용돈부족, 책값이 비싸다) · 경제사정 악화→생존 위해 문화비용 축소→도서구입 곤란→독서유보, 포기하게 됨 · 사회 환경문제가 독서를 방해함(퇴폐,향락시설이 너무 많음)

독서의 정신적·심리적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독서심리적 분위기 미형성 · 부모, 가족들의 독서거부 언동(부정적 태도) · 독후감 작성요구-독서 거부감, 싫증 유발 · 독서를 통한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을 잘 못 느낌 · 독서 감동경험 거의 미체득 · 독서의욕과 흥미상실(더 재미있고 흥미꺼리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 독서무관심(독서의 즐거움 거의 못 느꼈기 때문) · 독서흥미유발의 내적 요인 결여(독서욕구의 직접적, 간접적 요인 미충족) · 독서흥미의 편향성 방치 · 독서의 중요성, 필요성 에 대한 인식 부족 · 독서가치관 미형성 · 가정, 학교, 사회의 전반적 독서분위기 미정착 · 책 많이 보면 '범생'으로 왕따 당하는 독서의 심리적 풍토도 큰 문제 · 독서는 재미있고 대단히 유익하다는 인식이 박약함 · 독서목적 의식 즉 독서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 정서적 불안 · 심신장애(시력장애와 난청현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로부터 얻는 당장의 이익이 없음 · 입시공부에 쪼들려 책이라면 골때린다. 즉 독서가 신물나고 귀찮아 졌음 · 독서철학이 정립되지 못함 · 독서의 가치관→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 비학구적 태도→책 기피증(지적 모험심, 탐구심 결여) · 자기개발과 자아성숙, 자아확충에 대한 열망의식 부족 ·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탐구심, 호기심 부족 ·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성찰과 성취욕 부족 · 지적 쾌락과 독서의 감동경험 부족 · 독서는 정신적 노작→깊이 생각 하기 싫음 · 조급성(급한 성격)→독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됨, 지루하다 · 가치있는 삶에 대한 동경(진, 선, 미 추구)과 고급문화 향수의 열망이 없음 · 고독, 불안,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의 모색이 없음 · 차분히 독서할 심적 여유가 없음 · 독서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음 · 독서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물질우위사상, 황금만능주의, 향락·퇴폐주의 문화에 경도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정 악화로 생활에 여유가 없고 안정된 상태로 독서할 마음가짐이 안되어 있음 · 정서적 불안-독서할 심적 여유가 없음 · 물질우위사상, 황금만능가치관의 팽배로 독서가치관은 현저히 위축되어 있음 · 가정경제 유지의 책임과 사회생활, 치열한 생존경쟁인 직장 생활의 와중에서 독서할 기분이 생기지 않음 · 빨리 빨리 주의, 조급성으로 인하여 시간을 많이 요하는 독서는 실행하기가 지난함 · 초조, 불안, 근심. 걱정 등 각종 스트레스로 독서가 잘 안됨 · 독서의 효과, 독서의 기능, 독서의 유익성, 독서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독서목적의식이 불분명함 · 독서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인간다운 참된 삶의 질 향상에 우둔하고 관심이 적음 · 책속에 출세의 방법, 과업수행이나 문제해결방식, 마음의 위안, 수양의 비결, 외로움의 추방 등 삶의 길이 펼쳐 있음을 망각하고 있음 · 현대생활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심적부담과 갈등으로 인하여 여유와 안정된 마음으로 독서하기가 어렵다
---------------	--	--	---

4.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의 분석과 해설

이상 <표 2>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 즉 초등, 중등, 고등학생 과 대학생 및 일반 성인(사회인)들의 독서부진 원인과 이유(독서저해요소, 독서장애요인)를 우선 내용별로 크게 5가지 유별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항목하에 세부적 요인으로 전개 시켜 정리하여 보았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독서행동이 부진한 원인과 이유로서 각종 공교육, 사교육과 관련된 공부나 학원 다니기, TV 시청, 컴퓨터 및 오락게임, 인터넷, 대학진학 입시공부(고교생 해당) 때문에 독서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고, 어린 유아기부터 독서 습관이 거의 길들여지지 않은 탓으로 성장하면서도 독서가 귀찮고 재미없는 일로 각인되고 있다. 그리고 독서지도교육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독서행위지도와 독서기능지도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자신에게 적합한 도서가 무엇이며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는 능력이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독서행동이 둔화되고 있다. 독서지도교육의 미실시로 인하여 독해력, 감상력, 비판력도 부족하고 독서 부적응행동의 교정, 치료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아동과 학생들이 처해 있는 독서의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매우 불비, 불량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독서의 물리적 환경(도서구비, 서점, 학급문고,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독서생활 저해환경 등)도 잘 정비되고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독서의 심리적 환경(독서분위기 조성, 독서행동 조장·격려, 독서관장, 독서진흥, 독서행위 칭찬, 독서관계 유쾌한 놀이개발 등)도 충분히 조성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 학생들의 독서부진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은 독서와 연관되는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는 독서의식, 독서가치관, 독서효과,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각성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서에서 얻는 유익성, 독서는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움을 맛 볼 수 있다는 믿음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즉 독서를 통한 감동경험이 그들의 내면심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독서가 재미없고 귀찮고 싫증나고 거북스러운 행위로 인식되어져 있다.

다음, 대학생들의 독서부진 요인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독서의 습관화, 생활화가 정착되지 않음이 가장 주된 요인이다. 그들은 대학관문을 뚫기 위해 입시지옥 속에서 치열한 학력 경쟁을 벌였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꿈 많고 패기 발랄한 시절을 온통 책과 씨름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선 무미건조하고 암울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책과의 긴 여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책=독서라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실토하는 학생이 있다. 그들은 대학 입학 후 책 없는 세상에서, 당분간 책과 이별한 채 실컷 청춘을 구가하며 신나게 광란의 축제를 펼치고 싶단 심정을 고백하는 학생도 있다. 그들에게 있어 지난 3년여간의 '책과의 동침'은 바로 '적과의 동침'과 같다고 비유한 학생도 있다. 이렇게 대학생들의 책과 독서에 대한 느낌과 심경의 일단을 피력한 글을 읽을 때 이것은 일종의 경악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교육의 병폐와 부조리를 확인한 것 같아 입맛이 씹쓰레하다. 한국교육의 실상과 현주소에 대한 일대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 역시 현대의 영상문화의 위력 앞에 굴복하거나 함몰되며 심각한 중독증상에 걸려 인쇄매체에서 동떨어져 나감을 실감할 수 있다. TV 시청, 컴퓨터 및 인터넷, PC 통신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므로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들 자신도 개탄스러움을 실토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이 하는 일도 없는데 늘 바쁘게 움직이며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분이라면서 독서를 열심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차분한 기분으로 집중력을 갖고 독서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독서지도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그런지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 책을 빨리 읽지 못하여 책 읽기가 지루하고 싫증이 난다고 한다. 많은 학생들이 속독법을 배워야 하겠다고 한다. 독서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책을 읽어도 이해와 감상이 제대로 잘 안된다고도 한다. 그들 역시 독서풍토의 열악, 독서환경의 불비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보고 싶은 책을 제때에 사 볼 수 없어 독서기회를 상실하거나 독서의욕 실추와 현실적 좌절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공공도서관이 동네마다 있거나 대학도서관에 장서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대학 내의 독서분위기도 문제 삼았다. 책 읽는 학생이 오히려 백안시 당하고 이상하고 기특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단다. 교수들도 수업시간을 통하여 대학생 필독도서 목록을 제시하여 주거나 권장, 추천도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외국대학처럼 독서과제를 부과하거나 교과과정에 관련된 타 도서를 소개, 안내하는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라 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독서부진 원인은 대학생들의 독서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확고한 독서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독서가 당장 어떤 유익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치졸한 단견과 우둔함을 쓴 학생도 있을 뿐 아니라 독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싫증이 난다고 쓴 학생도 있다.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게을리 하면서 독서는 재미도 없고 지루한 정신적 작용이라면서 기피하려 한다. 대학생에 있어 독서는 알파요 오메가인데 그것도 모르고 독서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고 독서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동경과 질 높고 아름다운 고급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 있다. 현대의 물질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 향락·퇴폐 문화에 경도되어 대학생의 신분과 역할과 책무를 방기한 채 허황되고 목적의식도 불투명한 대학생활을 허송세월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비싼 등록금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일반 성인들의 독서부진 원인을 살펴보면, 그들은 각종 일(노동)에 얽매이고 지치고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다. 생업에 시달리고 직장업무에 신경이 곤두서 심신이 피로하여 독서할 엄두가 잘 생기지 않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성인들 역시 독서가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 되지 않아 정상적인 독서가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

성인들은 (가정을 가진) 가족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의 사회

인으로 곳곳이 행세하며 직장동료간, 친인척간, 친구간, 여러 소속된 단체의 회원간에 긴밀한 유대와 친교를 유지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시간이 늘 부족하고 분주한 나날 속에 차분히 독서하기란 대단히 힘든 노릇이다. 그 위에다 건강유지를 위해서 여가선용 활용과 여러 가지 스포츠 운동에도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들도 현대 영상문화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TV 시청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면 생활비를 절감해야 하고 문화비, 잡비, 여가선용비도 축소해야 하므로 특히 비싼 도서 구입은 뒤로 미루게 되어 보고 싶은 책도 제때에 볼 수 없는 형편에 봉착하게 된다. 성인들의 독서부진 요인에도 가정과 사회의 독서풍토가 관련되어 있다. 소위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외에도 사회의 퇴폐, 향락시설이나 음주문화가 독서생활을 저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독서저해요인이 한국 성인들의 독서부진을 초래하고 있지만, 역시 무시 못할 독서저해 관련 부정적 요인은 성인들이 갖고 살아가야 할 독서철학이 빈곤하거나 아예 독서의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국 성인들이 살아 온 그들의 역사와 사회사정은 격동과 불안정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역사의 격랑과 혼미 속에서 올바른 교육의 수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고, 더욱이 열악한 독서환경과 풍토 속에서 독서지도교육은 현실적으로 실시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독서행위지도나 독서기능지도는 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독서의 목적도 무관심 속에 묻어 두고, 독서의 효과와 독서의 유익성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놀며 나름대로 삶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Super ego의 경지에서 맛 볼 수 있는 고급문화 향유의 희망과 인생의 참된 의미의 모색과 진리가 무지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리란 철학적, 신앙적 가치추구를 위해 독서의 세계로 파고드는 지적탐구여행을 게을리 하고 있다. 독서가 선사하는 삶의 가치와 즐거움, 심적위로와 위안, 수양의 비결, 허무와 고독의 추방, 무한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책 속의 길을 발견하고 체험하지 못한 불행 때문에 한국 성인들의 독서행동과 독서생활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5. 한국인 독서부진 해결 방안

한국인 독서부진 해결방안은 앞서 본 연구자가 정리 제시한 제반 독서부진요인, 독서저해요소, 독서장애요인 등 독서를 방해하거나 독서행동의 발동을 저지하는 각종 원인과 이유를 제거하는데 있다. 이렇게 서술하면 그것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제적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부터 독서지도교육을 실시하여 독서흥미유발을 통한 독서습관화를 고착시킨다. 부모님이나 가족구성원이 유아기부터 동화나 아름다운 내용의 책을 읽어주거나 재

미있는 얘기를 들려준다. 어린시절부터 책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이상한 힘을 간직하고 있음을 각인시켜 준다. 즉 아동이나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요인인 여러 가지 욕구나 태도, 가치관과 외부적 요인인 자극이나 장면 등의 환경조건을 결합시켜 독서행동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지적 정의적 경험과 독서효과로 인한 보상을 체험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독서의욕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²²⁾

독서흥미가 왕성한 사람은 그가 초등학생이든 한참 대학입시 공부에 찌들린 고등학교 학생이든 전공과목 학습과 취직시험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대학생이든 가정살림에 바쁜 주부이든 직장생활에 여념이 없는 사회인이든 독서동기가 조성, 발동되어 독서행동을 지속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강화되면 자연스레 독서습관화, 독서생활화가 가능하게 된다. 독서흥미가 진정한 능동적 흥미로 체질화 되면 그것은 독서동기 조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독서학습의 효과 증진을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된다.²³⁾ “유대민족은 세 살 때부터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를 아버지가 직접 읽어 주면서 독서에 재미를 붙여 주기 위해 독서할 때마다 꿀 한술갈씩 떠 먹였다.”란 일화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둘째, 아동기부터 독서지도교육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흔히들 독서지도교육을 2원적 개념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독서지도’와 ‘독서교육’을 굳이 구별하여 각각 정의를 내리는 입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두 개념을 동등개념으로 취급하고자 한다.

독서지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필요성은²⁴⁾ 대체로 1) 올바른 독서습관과 자발적인 독서태도를 배양시킨다. 즉 독서의 비습관화는 바로 독서행동을 멀리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2) 독서자료 선택 능력의 배양과 독서흥미의 편향을 막는다. 3) 이해력과 감상력을 증진시켜 독서효과를 높인다. 4) 독서를 통한 발전적인 사고능력과 실생활로의 응용능력을 배양시킨다. 5) 독서 문제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독서지도교육의 필요성 외에도 독서행위지도와 독해기능지도를 통하여 독서지도교육을 받은 사람이 독서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도서를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독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의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독해기능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비판과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독서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서문제아 중 독서곤란아에 속하는 독서지체아와 독서부진아동의 독서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독서지도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독서능력이나 독서행동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므로 아동기부터의 독서지도교육 실시는 한국인 독서부진을 상당히 해소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이제는 지난 50여년간 줄기차게 외쳐 온 독서관장 캠페인이나 정부나 교육부, 언론기관, 민간단체 차원의 독서진흥 구호나, 독서의 달이나 도서관주간에 반짝 세일처럼 펼쳐는 독서추진 운동이나 독서

22) 손정표, 신독서지도 방법론(대구 : 태일사, 1999), p.203.

23) 손정표, 상계서, p.203.

24) 손정표, 상계서, pp.90~92.

계몽활동 가지고는 독서율이나 독서수준 향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교육제도적으로 독서교과목을 개설하여 독서교재도 개발하고 독서지도교육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실시함이 요망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사서교사를 두거나 독서지도 전문교사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독서생활을 원활히 계속하기 위해서는 독서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독서풍토 조성은 바로 독서환경의 바람직한 정비를 의미한다. 독서환경의 정비는 가정의 독서환경, 학교의 독서환경, 사회의 독서환경을 모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고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가정의 독서환경에 있어 물리적 독서환경은 조용한 독서공간이 마련되고, 읽고 싶을 때 손을 뻗으면 곧바로 책이 손에 잡히도록 읽고 싶거나 읽혀야 할 책(적서)을 비치해 둔다. 그리고 가정의 심리적 독서환경은 부모나 가족구성원들이 자주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족간에 독서대화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독서행동을 솔선수범 할 것과 평소 자녀들에게 독서행위 권유를 자연스럽게 심적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또한 자녀의 독서흥미와 능력의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자료를 구하여 자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읽도록 유도하고,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인근 도서관을 방문하여 독서시간을 갖기도 하고 사서직원과 독서상담을 통하여 추천 받은 책을 빌려 오기도 한다.

독서지도의 원리 중 동기의 원리(자발성의 원리), 목적의 원리, 능력과 흥미의 원리를 잘 고려하여 아동이나 자녀로 하여금 독서를 잘 할 수 있게 이끌어 줘야 한다. 유대인의 탈무드 경전에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전 먼저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라'라는 경구는 참으로 음미할 만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서환경 열악을 논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적당하는 것이 도서관 자체의 문제이다.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 예산, 인력, 장서수, 운영시스템 등 여러 문제가 어는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한국인의 독서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독서진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인력 및 시설의 확충과 충분한 장서의 확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용자 봉사의 극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TV 시청시간 및 컴퓨터·인터넷·PC 방 이용시간을 절반정도로 줄이고 그만큼 독서시간을 늘려야 한다. 현대인들은 왜 책을 멀리하며 독서를 지겹게 여기는가? 학생, 부모, 교사, 사회인 모두 "독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시간이 없다'란 이유는 이제 변명도 핑계도 아닌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시간부족은 대개 어디서 연유하는가? 물론 학교공부나 숙제, 학원공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독서를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최대의 주범은 TV 시청 등 영상문화의 위력이다. '1999년의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은 초등학교 9.4%, 중학생 4.3%, 고등학교 4.8% 등 전체적으로 6.2%에 불과했다. 반면 TV 시청은 23.3%, 컴퓨터 게임하기 8.8%,

PC 방 가기 4.8%, PC 통신과 인터넷 접속은 4.7% 로서 영상매체에 시간을 투자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²⁵⁾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TV를 이용해 대중을 손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풍자한 대목이 있다. TV가 인류문화 발전에 끼친 공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도 TV는 '세계를 보는 창'으로서 지리적, 인종적, 이념적 거리를 좁혀 명실상부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의 일등공신은 다름아닌 미국의 TV 드라마 '텔라스'였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TV 유해론 또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TV는 사람들의 균형적인 두뇌발달을 가로막아 통찰력, 지각력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시민문화를 쇠퇴시킨다는 것이다. 이른바 '바보상자론'이다.²⁶⁾ 일본의 어느 교육자는 'TV 망국론'을 우려해 자기 집의 TV를 파괴하였다고 한다. TV는 시청자로 하여금 사고력, 상상력을 마비, 둔화시키며, 단편적, 표피적, 직선적, 찰라적 사고를 조장시킨다고 한다. 여러 가지 독서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TV와 비디오 시청이 독서의 최대의 저해요소이며 '독서행동의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자의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대개 30분(1999년 현대리서치 연구소 대표 이상경 조사에 의하면 55분이지만)인데 비하여 TV 시청시간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이고, 중학생의 경우 1일 독서시간은 평균 39.2분(1999년 현대리서치 연구소 조사는 38분)인데 비하여 TV 시청시간은 3.1시간²⁷⁾이며, 한국 Gallup이 1999년 9월 15일에서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4%가 한 달간 잡지를 제외하고 단1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그리고 같은 해 한국출판연구소 실시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성인의 1일 평균 독서시간은 평일 37분, 주말 34분이며, TV 시청시간은 평일 112분, 주말 151분으로 TV 시청시간이 독서시간보다 약 4배 가량 많은 편이다.

대학생의 경우 하루 독서시간은 59분 정도인데 비하여 TV 시청시간은 3.2시간으로 나타났다.²⁹⁾ 한참 독서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할 대학생들의 독서실상이 이 모양이니 한심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다.

한국인들의 휴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보내기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2.7%가 'TV 시청'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TV의 위력,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놀라울 정도이다. 이처럼 한국인

25) 경향월드넷-인터넷 경향신문, 「문화·생활」, <http://www.khan.co.kr>=2000/05/12/40:14. 사건기획팀, 김중식 기자.

26) 경향신문, 2000년 9월 1일(금) 6면. 'TV 없는 삶'에서 인용.

27) 박정길, "중학생 독서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8집, 1권(1997), p.17.

28) 연합뉴스, 2000. 10. 30. 한겨레 김인철 기자.

29) 박정길, "독서학점 부과제도를 위한 대학생 독서실태 조사·분석", 경성대학교 논문집, Vol.21, No.1 (2000), p.29.

의 독서시간과 TV 시청시간의 대비는 여러 조사와 정황으로 계산하여 보니 보통 1: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 및 국민 개개인의 자기반성과 생활개선이 있어야만 국민의 독서율이 향상되고 독서수준도 고양되는 바람직한 국민독서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다섯째, 모든 TV 방송국이 독서프로그램을 설정하여 독서의욕을 촉진하고 독서흥미를 유발하며, 국민 독서진흥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오늘날 영상매체의 위력과 영향력 및 계도적 효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영상문화가 인쇄문화를 압도하고 있으며 인쇄매체 효과는 점차 위축, 쇠퇴 일로에 처해 있다. KBS 방영 'TV 책을 말한다'와 MBC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와 SBS FM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프로그램은 상당한 호응과 독서촉진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TV 독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책의 판매량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곤 한다. 국민들의 독서의욕 자극과 독서행동 증진방안으로 대중매체 중에서도 독서관계 TV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모든 방송국에서 현재 독서생활 최대의 저해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TV 시청의 영향력을 되려 역이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한지의 독서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인식을 드높여야 한다. 국민 독서생활의 증진방안을 위한 언론대중매체, 영상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진지하게 연구,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영상매체의 무자비한 횡포와 폐해(인간성 파멸, 인간의 찰라적, 표피적, 감성적 사고의 형성과 조장 등)를 희석시키고 감소, 저지시키기 위해서도 깊은 사고력을 길러 주고, 인간성을 풍요롭게 형성시키며, 지적·이성적·창조적·상상적 인간을 육성시키기 위한 독서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언론매체 종사자, TV 방송 제작자들의 깊은 이해와 자발적 협력이 수반되는 일대 사고의 전환이 요망된다.

여섯째,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실적을 교과성적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제안은 새삼스러운 발상은 아니나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고무적임이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많은 연구사례가 있지만 지면의 제한 관계상 2가지 정도만 소개한다면, 전북 도교육청이 1997년도 도내 각급 학교의 독서교육강화를 위해서 독서실적을 교과성적에 반영하는 독서생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초등생을 대상으로 독서량과 독후감 쓰기, 독서발표회 등의 독서실적을 국어교과의 읽기·쓰기·말하기 영역에 각 3~5점씩의 점수를 반영토록 한 결과 예상 외의 독서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³⁰⁾ 또 한 사례는 호남평야의 백지 「만경 여자고등학교」에서 고교 3년 동안 양서 100권 읽기를 의무화 한 결과 독서지도를 받은 취업반 전원이 취직하고 진학반 전원이 대학입학에 성공하였다.³¹⁾

30) 한국교육신문, 1997. 8. 27. 제1870호. 3면.

31) 조선일보, 2001. 12. 3. 제25173호. 7면.

이상의 사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이지만, 대학에서도 「독서학점 부과제도」를 실시하여 (동아대학교 및 부산여자대학→지금은 신라대학교) 예상 외의 효과를 거둔바 있다. 물론 독서는 동기의 원리(자발성의 원리)에 의해서 개개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찰과 각성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인간이 가진 나태함과 자유와 방임이 초래하는 폐단과 역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타율적인 계도와 유인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실시함이 요구되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이따금 자각과 지시명령이 주어지거나 채찍과 당근이 주효하기도 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심 유발을 통한 과업수행의 지도와 안내가 필요함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째, 캠페인성 국민독서추진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독서진흥책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일시적으로 잠깐 펼쳐는 구호성, 일회성, 계몽성 독서추진운동이 아닌 전국적 범위에 걸친 중앙과 지방 단위로 「범국민 독서진흥 조직」을 결성하여 규모있게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독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구입비의 연말정산시 세제감면 혜택 적용, 독서실적을 각종 능력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거나 입사시험이나 대학입시성적에 일정 부분 반영시키는 방안, 전국민 하루 3번 독서하기 (취침전 30분, 아침기상 후 30분, 하루 활동 중 적당한 시간에 30분)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언론매체와 영상매체를 통하여 계도하고 교육시킨다. 현실적으로 언론사나 방송국측의 동참과 협조 없이는 국민독서진흥은 실현되기가 어렵다. 2002년 3월에 문화일보가 출판관련 6개 단체와 공동주최한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연중 캠페인 '다시 책이다'와 같은 국민독서운동의 전개가 좋은 본보기이다. 외국의 사례로서는 영국의 책읽기 운동 '북 스타트'가 훌륭한 성공을 거두며 영국 지식사회의 부흥을 불러 왔고, 미국 시카고의 독서운동 '한권의 책, 하나의 시카고 (One Book, One Chicago)'가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³²⁾ 또한 2002년 3월 4일 '정보사회, 왜 독서혁명인가'(제1회 국민독서 대토론회)라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정춘 교수는 "세계 각국이 출판산업과 독서문화를 보호하고 진흥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는 이유는 독서력이 정보사회의 필수조건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제는 구호성 독서캠페인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국민독서진흥방법을 수립하여 연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2) 문화일보, 2002. 3. 5. 배문성 기자/mshae@munhw.co.kr

IV. 결론 및 제언

바야흐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요 지식·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독서는 인간의 사고력, 창의력, 상상력을 개발하고 풍부히 고양시킬 뿐 아니라 인간다운 참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서적 함양에도 필수적 원천을 제공한다. 오늘날 국민의 독서력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요 중핵적 요소로서 국가경쟁력은 곧 바로 교육력과 독서력이 그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독서실상은 다른 선진제국에 비하여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즉 국민의 독서량이 너무 부족하고 독서율도 현저히 낮다. 이러한 독서빈국의 형세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정보강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한국인의 독서율 증가와 독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인 독서부진 요인을 철저히 규명,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각종 각양의 독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한국인 독서부진의 원인과 이유를 명백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구조적, 다면적,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측면, 사회적·교육적 측면, 정신적·심리적 측면을 현상론적 방법과, 문화기술적 방법을 구사하여 고찰하고 독서부진 요인을 규명하여 보았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과거의 독서는 그 시대적 상황과 사회제도상 일부계층의 전유물처럼 행해졌기 때문에 서민이나 하층계급의 일반대중에게는 널리 확산되지 못하여 대중적 독서, 국민적 독서로 정착될 수 없었다. 또한 우리 민족사는 수난과 질곡의 역사였고 참담한 혼란의 역사였기 때문에 개개의 국민들이 생존적 차원에서 허덕이고 심신양면으로 불안정 상태에서 독서의욕과 독서흥미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독서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결정적 요인은 일제 식민통치시절 우리의 말과 글이 수탈당하므로써 우리의 의식과 정신과 영혼은 거의 말살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독서생활은 일종의 꿈이요 신기루였다.

둘째, 사회적·교육적 측면에서는, 독서의 사회적 분위기와 풍토가 열악한 수준으로서 독서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상당히 불비되고 악조건 상태에 놓여 있다.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숫적 부족과 예산지원 부족, 전문사서 보강문제, 시설문제, 운영시스템과 도서관 봉사의 소극적이고도 적당주의적 행태가 독서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서관 중심의 독서지도 교육과 독서유인체제 구축의 미숙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독서지도 교육, 독서분위기, 독서환경도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 사회적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영상문화에 퇴조되어 가는 활자문화의 위기상황으로서 TV와 비디오 시청, 컴퓨터와 인터넷 등 영상매체의 위력 앞에 독서가 위축 내지는 실종되어 가는 형국을 바로 세우는 묘책이 요망된다. 그리하여 소위 '독서의 적'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TV의 영향력을 역이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 언론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독서관계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하여 모든 TV 방송국들이 지금의 몇배 이상의 독서프로그램을 할애하여 국민의 독서의욕과 독서흥미를 자극하고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반영해 주기를 요망한다.

셋째,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조망은, 독서문제에서 제일의 적으로 지적되고 독서부진과 독서저해 요인으로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독서습관화’문제이다. 어린시절부터의 지속적인 독서지도 교육이 수행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독서습관화 형성은 매우 어렵다. 미국의 LA 중앙도서관장인 세실리아 리들씨는 “평생독자(life long reader)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9세 이전에 독서습관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서습관 형성은 가정·학교·도서관이 연계돼야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어린이 독서습관은 도서관과 학교의 연계, 준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독서습관화를 위해서 필요한 유아기부터의 독서재미 붙이기, 능동적 독서흥미의 유지와 발전,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독서의 가치관 정립, 그리고 차츰 성장하면서 무의식적 상태에서 독서가 하고 싶어지는 독서심리 유발과 실천적 행동화, 확고한 독서철학에 입각한 독서의 생활화, 체질화가 고착되어야 한다.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독서하지 않고는 무엇인지 허전하고 많은 것들을 상실한 것 같은 비독서공허감, 박탈감, 지식·정보의 경쟁에서 낙후할 지 모르는 불안감, 초조감, 강박관념이 저절로 작동하는 독서호기심이 왕성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독서부진 요인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우리국민의 독서저해 요소, 독서장애 요인을 추출하고 질문지법과 면접법, 개인적 인터뷰 형식을 통하여 수집된 제반 독서부진 요인을 <표 2> 에 정리하여 보았다.

이들 제 요인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니 다섯가지 항목으로 대별되었고 그 항목별 세목이 해당되는 대상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놓았다. 그리고 한국인 독서진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기부터 독서지도교육을 실시하여 독서흥미유발을 통한 독서습관화를 고착시킨다.
- 2) 아동기부터 독서지도교육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 3) 독서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 4) TV 시청시간 및 컴퓨터·인터넷·PC 방 이용시간을 절반정도로 줄이고 그만큼 독서시간을 늘려야 한다.
- 5) 모든 TV 방송국이 독서프로그램을 설정하여 독서의욕을 촉진하고 독서흥미를 유발하며, 국민독서진흥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6)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독서실적을 교과성적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7) 캠페인성 국민독서추진운동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독서진흥책이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한국인의 독서실태를 지난 12년간에 걸쳐 조사하여 연도별로 대비시켜 놓았고, 또한 독서부진요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독서저해 요인 및 독서장애 요소를 각 대상별로 일목요연하게 유별하여 표로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인 독서진흥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자는 하루속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과 독서수준, 독서실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하루속히 독서문화 대국, 독서문화 강국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